홈플러스 광주 주월점 신축 철회

남구청에 건축허가 신청 취하 … 재래상인과 마찰 일단락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광주 주월점 신축 추진을 자진 철회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7일 광주 남구청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지난 5일 주월점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구청에 전달했다.

홈플러스는 2000년부터 광주시에 5만3000여㎡, 지상 7층 규모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했지만 시가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7차례에 걸쳐 불허하자, 규모를 대폭 줄여 지난해 10월 남구청의 심의(면적 3만㎡ 이하는 구청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가 신축부지 내 시유지(1900여㎡)를 매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데다 인근 재래시장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

이로써 10년에 걸친 홈플러스 주월점 신축 논란은 마무리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시유지 매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자 홈플러스 측이 사업 추진이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光銀 F1 입장권 판매 협약 광주은행 송종욱(맨 오른쪽) 부행장이 지난 6일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대회 운영법인(KAVO)사무소에서 KAVO 정영조(가운데)대표와 대회 입장권 판매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광주은행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137개 점포에서 대회 입장권을 판매한다. 〈광주은행 제공〉

목포 하당 대형마트 신축 조건부 승인

전남도 건축위 심의 가결

영세상인들 강력 반발

전남도 건축위원회는 지난 5일 B사의 목포 하당 대형마트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함으로써 지역 슈퍼마켓 협동조합과 재래시장 등 영세상인이 반발하고 있다.

B사는 지난해 8월 목포시 상동에 지하 2층·지상 4층(연면적 3만5263.43㎡) 규모로 판매 및 영업시설 건립을 용도로 한 대형마트 건축계획 심의를 목포시에 신청했지만 목포시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 조정을 이유로 유보처분을 내린 바 있다.

B사는 이에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최근 승소했고 지난 5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 절차 이행 및 교통처리 계획 보완 등을 조건으로 가결됐다.

전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재래시장 연합회는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지역 영세 상인의 형편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光銀 '어닝 서프라이즈 경영' 강화

조기달성위해 고객 밀착형으로 조직개편

광주은행이 2010년 어닝 서프라이즈(Earning Surprise·사상 최대 실적) 조기 달성을 위한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송기진 행장은 6일 고객지향형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서장·지점장급 2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올 상반기 경영실적 호조를 하반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매조지하기 위한 배경이 깔려있다.

인사의 초점은 고객관리 서비스를 한 차원 높여 영업기반을 다지는 데 맞춰졌다. 기존 개인영업전략부에 소속된 '고객만족센터'를 독립부서로 분리,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콜센터와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은행이용 채널 단계에서부터 고객 만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 수익력 극대화를 위해 광주은행 지점 가운데 영업규모가 큰 곳으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 남부지점, 목포지점 등에 경영마인드를 가진 간부들을 전진배치한 것도 눈에 띈다.

광주은행은 이번 인사에서 사회공헌 부문도 강화했다. 김준원 사회공헌사무국장에게 창립42주년을 맞아 개설할 'KJB 금융박물관 설립 사무국장'을 겸임토록 한 것은 지역 근대사에서 누락된 금융사를 정립하기 위한 고려가 담겨있다.

한편, 광주은행 PB센터 재무상담역으로 활동해 온 정순자 부부장을 여성지점장(매곡동지점장)으로 전격 발탁한 것도 여성리더 육성은 물론 남녀 고용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광주은행측 설명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기반을 다져 2010년 어닝 서프라이즈를 조기 달성한다는 포부가 담긴 인사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온라인게임 3종 글로벌 톱10 진입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전 세계 온라인게임의 순위를 측정한 결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1·2와 아이온,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톱 10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정보통신(IT) 컨설팅업체인 스트라베이스가 DFC 인텔리전스(Intelligence) 자료를 재구성한 데 따르면 지난해 매출 기준 온라인게임 톱 10에 한국산 게임 3종이 이름을 올렸다.

엔씨소프트의 리니지1·2가 지난해 매출 2억7000만달러로 전체 4위를 차지했고 아이온이 2억3000만달러로 6위에 위치했다.

엔씨소프트와 함께 국내 게임산업을 이끌어가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는 2억달러의 매출로 7위를 차지했다.

리니지1·2는 2008년 5위에서 2009년 4위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지난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아이온은 새롭게 순위에 들었다.

넥슨 메이플스토리는 2008년 3위에서 2009년 7위로 순위가 소폭 하락했다. /연합뉴스

연예인들 벌이 직장인보다 못하다

연간 수입 1인당 평균 2850만원

팬들의 열광적인 인기와 호화로운 생활 등이 먼저 떠오르는 배우·탤런트, 가수, 모델 등 연예인들의 실제 생활은 어떠할까.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배우·탤런트, 가수, 모델 등 연예인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은 1인당 평균 28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직장인(과세.비과세 포함)들의 평균 연간급여 2580만원보다 270만원 더 많은 것이다. 하지만 과세대상 직장인들의 평균 연간급여 3820만원보다는 1000만원 가까이 덜 버는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 2008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급액 현황을 토대로 자유직업 및 서비스 종사자들의 연간수입을 분석한 결과, 연예인 가운데 배우나 탤런트가 가수나 모델보다는 훨씬 수입이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배우·탤런트 1만2천229명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모두 4637억5300만원으로, 1년에 1인당 평균 38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3천152명이 신고한 가수들의 연간수입은 1인당 평균 2600만원에 그쳤다.

이어 모델 6238명이 신고한 연간수입은 1인당 평균 1천100만원으로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 연예인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이거나 오히려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비맥주, 월드컵 덕 봤네

주력상품 카스 선전 시장 점유율 45%

오비맥주(대표 이호림)가 올 상반기 맥주 시장의 침체에도 주력 브랜드인 '카스'의 꾸준한 매출증가로 선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비맥주가 주류산업협회 잠정 집계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국내 전체 맥주 판매량은 8203만 상자(500㎖·20병)로 지난해 동기 대비 4.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비맥주는 3511만 상자를 판매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1.7%)하락,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했다. 경쟁사인 하이트맥주는 4692만 상자를 팔았지만, 매출이 6.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비맥주측은 올 1분기 매출이 다소 떨어졌지만 카스의 꾸준한 성장세와 더불어 올해 5월 출시한 '카스 라이트'가 월드컵 특수를 누린 덕분에 매출실적을 만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월 한달 동안 오비맥주의 시장점유율은 44.8%로 전월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주택금융공사 서민주거안정 힘썼다

광주전남지사 6년 동안 2조7000억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2004년 설립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모두 2조7339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통해 경제·주거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공사는 광주·전남지역 경제 주거안정을 위해 7000억여원의 직접 대출과 2조여원의 보증지원사업을 펼쳤다.

공사는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장기 고정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 6909억원을 지원했다.

또 전세자금보증 7996억원, 분양중도금보증 4535억원, 주택건설사업자금 7502억원, 주택연금 400억원 등 지역 내 약 10만여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 2조433억원의 보증지원을 했다.

공사는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시판중인 주택연금은 노령 부부가 살던 집에서 종신까지 거주하며 매월 일정급의 생활비를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으로 노후 준비가 미흡한 노령가구에 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장상인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장은 "올해 보금자리론 및 주택신용보증 지원 업무 확대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주거안정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